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8일 월요일 음 10월 1일 (8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밤이 되며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11-12°C, 낮 최고 기온은 20-21°C로 예상된다. 아침에 한라산에는 서리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등반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30%
20%	성산	30%
20%	고산	30%
20%	서귀포	30%

해돋이 06:49	달뜨기 06:31
해질 17:47	달지기 18:09
물때 만조 10:39	간조 04:39
22:43	17:08

주간예보 <문의:국립한라대 131>		
내일	구름 많음	15/21°C
모레	맑음	14/19°C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G20 관광장관회의의 '관광공해 해결 노력'

'오버 투어리즘' 공동성명 채택

일본 홋카이도 국장초에서 25-2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회의에서 '관광공해' 문제를 언급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회의장 전경.

'오버 투어리즘'으로 불리는 '관광공해'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다"고 명기해 관광객들의 책임성을 지적했다. 관광공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도록 양쪽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물의 도시로 알려진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에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이 방문 국가에 안기는 전체 수입은 1990년 271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5배 수준인 1조3400억 달러로 급증했다.

G20 관광장관들이 26일 홋카이도 회의의 마지막 날 채택한 성명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수많은 어려움을 낳는다"며 관광공해 문제를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성명은 "관광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이 자연·문화재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광을 촉진한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서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문미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3%, 제주도는 14.8%다. 우리나라는 2026년쯤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때문에 누구에게나 닥칠 보편적 문제인 나이들과 관련한 돌봄 불안 해소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우리사회가 챙겨야 할 중요 현안의 하나로 꼽힌다.

이달 중순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이 열렸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핵심은 현재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살던 집

지역사회가 돌보는 '통합돌봄'에 거는 기대

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과 돌봄을 통합지원하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18년 말 노인인구 비율이 17.8%인 서귀포시는 2022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협력해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집안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세면대·안전바를 설치하는 집수리 사업에서부터 방문복약 지원과 한의진료, 생활·이동·식사 지원, 목욕서비스 등 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나 정부 복지관련 재정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일본이 요양시설을 1인실로 운영하는 것은 노후에 요양시설로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평소 생활하던 방식대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2021년까지 약 2년간 추진될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대상은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노인이다. 요양·종합·재활 병원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희망하거나 골절·중증질환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고 싶은데 독거가구 등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집으로의 복귀·정착 지원을 돕게 된다. 또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급이판정 노인이나 복합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돌봄모형을 통해 등급 진입이나 병원·요양원 입소 등 사회적 입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데 맞춰진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양적 확충에 집중된 나머지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했다. 보험 시행 이전 온전히 가족의 몫이던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은 완급이판정 노인이나 복합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돌봄모형을 통해 등급 진입이나 병원·요양원 입소 등 사회적 입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데 맞춰진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서비스하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큰 방향성은 일단 그려졌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겠지만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고, 개별 욕구에 맞춘 종합적 복지 서비스란 점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 전주시는 올 8월 전국 최초로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서귀포시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노인돌봄의 최적모델이 만들어질지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빠른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여서다.

열린마당

2°C를 향한 인류의 선택, 제주는 탄소없는 섬 생활속 성 불평등 '성별영향평가'로 개선한다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1992년 유엔환경경제개발회의의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차원의 공조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5월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이하 '탄소없는 섬') 2030계획을 발표하며 제주형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제시했다.



김현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실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는 신(新)기후에너지 시대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후 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생각의 전환을 맞이해 당연시했던 생각과 일상생활, 관습 등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자라나 땅, 암파, 아내, 머느리, 직장인 등 수많은 기대와 역할 사이에서 순응적으로 살아왔던 나는 아직도 적지 않은 혼동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의 지정 또는 선정된 세계적으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제주도의 해수온도는 전세계 평균 대비 1.5배 상승했고, 아열대 어

류가 50% 증가했다. 한라산 구상나무가 위기근접종에서 절멸위기종으로 상황 조정됐고, 바다의 사막화(갯녹음 현상)가 가속화하는 등 제주도의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는 데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으며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책임과 권리가 '성평등'임을 알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 운동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7개 정책영역에 40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더 제주처럼'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도정 전반의 주요 사업과 계획, 홍보물 등에 대한 남녀 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 검토해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평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사업을 선정해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축제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평등 문화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오하라베니
- 천전(가와대)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